

**전일동향**

전일대비 3.60원 하락한 1,434.30원에 마감

21일 환율은 오후 3시 30분 기준 전장대비 3.60원 하락한 1,434.30원에 마감했다. 이날 환율은 NDF 증가를 반영해 전 거래일 대비 4.60원 하락한 1,433.30원에 개장했다. 하락 출발한 환율은 저점매수에 1,436원까지 일시적으로 반등했다. 이후 역외 달러 매도세에 하락 전환했으나 국내증시 외국인 순매도 등에 하락폭을 축소하며 1,434.30에 종가(15:30 기준)를 기록했다. 주간장중 변동 폭은 5.30원이었다. 한편, 이날 외환시장 마감시점의 엔-원 재정환율은 952.98원이다.

전일환율변동	구분	시가	고가	저가	종가(15:30)	평균환율 (매매기준율)
	달러	1433.30	1436.70	1431.40	1434.30	1434.10
엔화	960.73	963.10	951.68	961.77	-	
유로화	1510.20	1510.66	1495.63	1500.39	-	

F/X(달러-원) 스왑포인트	1M	3M	6M	12M
	보장환율(수출)	-0.33	-5.32	-12.56
결제환율(수입)	-0.12	-4.51	-10.82	-24.3

\* 해당월 최종영업일까지의 스왑포인트, 전일자 청약고객이 수취한 스왑포인트  
\* 당일 청약시 시장상황에 따라 변동하는 바, 자세한 사항은 환위험관리 지원센터(<https://www.ksure.or.kr/rh-fx/index.do>) 확인

**금일 전망**

위험선호 위축에...1,430원대 중반 중심 등락 전망

NDF에서 환율은 스왑포인트(-2.15원)를 고려하여 전 거래일 현물환 증가(1,434.30) 대비 3.60원 상승한 1,435.75원에서 최종호가 됐다. 금일 환율은 미 경제지표 부진에 따른 위험선호 위축에 상승 압력이 우세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2월 S&P 서비스업 PMI 잠정치는 49.7로 예상(53.0)을 큰 폭으로 하회했다. 미시간대 2월 소비자신뢰지수 최종치도 64.7로 예상(67.8)을 하회했다. 특히 소비자신뢰지수 중 5-10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3.5%로 상승하며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에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제기되며 미국 국채금리 2년, 10년물은 각각 4.202%(7.20bp ↓), 4.435%(7.10bp ↓)로 하락 마감했다. 달러화는 국채금리 급락에도 위험선호 위축에 전일대비 0.27% 상승한 106.63pt에 마감했다. 엔화는 미국 국채금리 하락에 강세를 시현했다. 유로화는 프랑스, 유로존 서비스업 PMI 예상치 하회에 달러 대비 하락했다. 금일 환율은 위험회피 심리가 고조되는 가운데 국내증시 외국인 자금 매도 가능성 등에 상승 압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수입업체 실수요 저가 매수도 환율 상승 분위기에 일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수출업체 네고, 위안화 강세 동조화 가능성 등은 상단을 제한할 것으로 예상된다.

<b>금일 달러/원 예상 범위</b>	<b>1431.50 ~ 1439.75 원</b>
----------------------	----------------------------

<b>체크포인트</b>	■ 전일 외국인 주식 매매 동향 : -2180.64 억원
	■ 뉴욕 차액결제선물환율(NDF) : 전일 서울외환시장 현물환 대비 3.60원 ↑
	■ 美 다우지수 : 43428.02, -748.63p(-1.69%)
	■ 전일 현물환 거래량(종합) : 97.95 억달러
	■ 전일 외국인 채권매매 동향 : +2593 억원

※ 본 리포트는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외부기관으로부터 획득한 자료를 인용한 것으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